



KOGA ...
36회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인의 날 행사 열어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94



오름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KOGA ...

36회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인의 날 행사 열어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KOGA, 회장:김화룡)에서 2025년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인 축제의 날 행사를 까라왕 LOTUS CC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36번째 열리는 KOGA OPEN GOLF FESTIVAL로 36년간의 술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봉제인의 인내와 끈기를 이어 나가는 큰 의미가 있는 본제인 축제의 장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대사대리를 비롯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회장, 코참 이강현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 명예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엽 명예회장, KOGA 배도운 명예회장, KOGA 안장섭 명예회장, 이세호 민주평통 남부지회장, 장윤하 KOSA회장, 김태화 대한체육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와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 축제의 장이 열렸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김화룡회장은 우리 봉제인은 전통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왔다, 현재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또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봉제인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것이라 믿는다며 의지의 코가, 다시 코가의 구호를 힘자게 외치자고했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는 축사에서 대사관에서는 봉제협회의 힘든 환



▲김화룡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회장

경의 타개를 위해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코트라와 함께 고심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최근 인도네시아 정국의 불안으로 또다른 걱정이 많았었다면서 우리 봉제인들이 함께 뚝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길 바라고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회장은 국내외적으로 힘든 환경속에서 우리 봉제인들이 잘 버티고 이겨줘서 감사



▲김종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함을 표했다. 이어지는 2부 행사와 3부 행사에서 골프대회 시상식과 회원사의 노래습씨, 럭키드로우로 이어지는 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는 지난 2021년 발행한 봉제협회 회원사 정보 및 주소록을 다시 재 정비하고 업그레이드시킨 2025년 봉제협회 회원사 정보 및 주소록을 발행해 회원사의 마케팅과 홍보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KOGA의 위상과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올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예년과 달리 법률,건축,회계등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회원사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2025년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의 봉제인 축제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함께 상생하는 봉제협회로 거듭나는 KOGA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편집부]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미국 관세폭탄, 인도네시아로 투자 이전 유도할 것” 전 재무장관

차팀 바스리 전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인도네시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외국 기업 또는 바이어들이 미국의 관세폭탄과 미·중 간 끝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인도네시아는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해 19%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며, 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필리핀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의류산업의 경쟁국인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30%와 20%의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세 차이는 11% 포인트에 불과하지만, 현재 중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워싱턴과의 불안정한 휴전에 따른 것이며, 이 휴전은 8월 12일 만료될 예정이다. 휴전 이전 중국의 관세율은 145%에 달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일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차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와 미·중 무역 분쟁이 인도네시아로의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위험 최소화를 위해 투자지를 다변화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상품을 생산할 때, ‘관세’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로 투자를 재배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이전 기회”라고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다.

이어 “중국과 방글라데시에서 주문이 줄고 인도네시아 의류 주문이 늘고 있는 현상에서 ‘이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투자를 아세안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오기 위해서는 자카르타가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팀은 2012~2013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을 이끌었던 인물로, 최근 수년간 정부가 상당한 개선을 이뤘으며 현재 시스템이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6월 인도네시아는 432조 루피아(약 26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다. 상위 5개 투자국은 ▲싱가포르(88억 달러) ▲홍콩(4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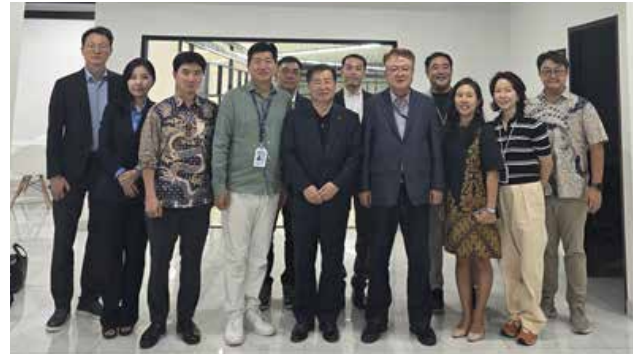
달러) ▲중국(36억 달러) ▲말레이시아(17억 달러) ▲일본(16억 달러)이다. 이 통계에는 석유·가스 상류 부문이나 금융 서비스 부문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카르타글로브는 관세로 인한 생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차팀의 발언에 대한 마사키 야스시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의 견해를 물었다. 마사키 대사는 일본 기업들의 행동에 미칠 관세 영향에 대해 논평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일본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와 상호 신뢰를 구축해 왔다. 이는 무역전쟁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이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KOTRA, KOGA... 미국관세로 인한 한국기업 애로사항 논의



지난 28일 PT. TPINC TRADING JAKARTA에서 미국 관세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봉제, 섬유, 신발 기업의 지원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미팅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을 비롯한 자카르타 무역관 정윤재 과장, KOTRA 이효연 부장이 참석했고 KOGA에서는 김화룡 회장 이규백 수석부회장, 강원구 재무부회장, 홍희준법인장, 김형근대외협력부회장, 김태식 사무총장, 박시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국 및 인도네시아 KOTRA 대표단과 KOGA 회장단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이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코트라에서는 관세대응에 관한 설명과 우리기업이 처한 현실과 애로 및 현황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관세폭탄’에 인도 기업들, 주문 취소... 인니 등 생산공장 이전 추진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 방침으로 인도 제조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고객사들이 인도산 제품 주문을 취소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해달라는 요청을

잇따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갭·콜스 등 미국 주요 브랜드에 의류를 공급하는 펄 글로벌의 팔람 바네르지 전무이사는 “모든 고객이 이미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들은 인도 대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펄 글로벌은 이에 미국 고객사들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과테말라에 있는 17개 공장으로 생산 이전을 제안했다.

다른 의류업체들도 대체 생산기지를 찾고 있다. 리차코 익스포트는 올해 인도 내 20여 개 공장에서 미국에 약 1억1,1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했지만,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네 팔 카트만두에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이전 여력이 있는 대형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등 관세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발 빠르게 생산을 옮기고 있지만, 인도 내에만 공장이 있

는 중소·영세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없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의류산업 중심지 티루푸르에서는 고객들의 주문 보류가 잇따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50% 관세가 인도의 제조업 발전 목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기술OK 신뢰OK 안전OK



삼성물산



인니 정부와 섬유업계, 원사 수입 문제로 갈등



▲서부 자바 반둥 지역의 마자라야 산업 단지에 있는 직물 공장.2019.1.4 (사진=안 따라/Raisan Al Farisi)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특정 중국산 합성 필라멘트 원사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BMAD) 부과 제안을 재차 거부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서 최대 4만 명의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원사 생산자협회(APSyF)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지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수입 마피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1년 간의 조사 끝에 6월에 특정 제품에 대해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무역부 장관 부디 산토스는 국내 생산업체의 유사 제품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이 권고안을 거부했으며, 산업부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는 지난 23일 성명에서, 대량 해고는 국가적 비극이 될 것이지만 업스트림 산업의 해고 가능성은 지역 흡수

를 통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건수는 훨씬 낮다고 말했다.

페브리는 또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필라멘트원사 생산자협회(APSyF)

회원들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협회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APSyF 회원사들의 수입량은 올해 약 3.4배가 급증해 1,407만 킬로그램에서 올해 현재까지 4,788만 킬로그램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페브리리는 보세구역을 이용해 대규모로 자유롭게 수입하는 APSyF 회원들이 있다며, 그들은 보호를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 자립의 정신과 명백히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APSyF 회원 20개사 중 5개사가 산업 활동을 부처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PSyF 사무총장 파르한 아퀸 사우퀴(Farhan Aqil Sauqi)는 언급된 5개 회사가 이

미 운영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퀸은 25일 성명에서, 산업부가 발행한 과도한 할당량의 피해자로 사업을 중단한 APSyF 회원사는 PT Panasia, PT Polichem Indonesia, PT Sulindafin, PT Rayon Utama Makmur와 PT Asia Pacific Fiber 등 5개 회사라고 밝혔다.

상당한 양의 상품을 수입한다는 산업부의 비난에 대해 아퀸은 협회 회원들이 테레프탈산, 에틸렌 글리콜, 폴리에스터 칩과 같은 원자재만 수입한다고 강조했다.

아퀸은 “회원사 중 누구라도 상당한 규모의 원단 수입 할당량을 받았다면 그것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허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라멘트원사 생산자협회(AP-SyF)는 이전에 수입 할당량 증가로 인해 섬유부문의 탈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섬유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협회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60개 공장이 폐쇄되어 25만 명의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8월 기준으로 올해 섬유 및 신발 부문에서 4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협회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를 인용해 실과 원단 수입량이 지난 8년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실 23만 톤, 원단 72만 4천 톤이었고 2024년에는 각각 46만 2천 톤, 93만 9천 톤으로 증가했다. 아퀸은 부처 내에 수입 할당 마피아가 활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패패부산 참가하세요 ... 국내외 360개사 모집 부산TP, 내달 30일까지 접수... 신발,패션 최신 콘텐츠 선보

부산테크노파크가 ‘감수성의 지혜(Wisdom of Sensitivity)’를 주제로 열리는 2025 PFB(Passion & Fashion Busan · 패패부산 · 포스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TP는 다음 달 30일까지 국내외 360개 사 380부스 규모의 패패부산 참가 기업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TP 부산섬유 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 산업사업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다. 오는 10월 30일부터 3일간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글로벌 신발 · 섬유패션 산업의 큰 흐름인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친환경(ECO) 관련 최신의 핵심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역과 글로벌을 잇는 글로벌

(Glocal) 신발 · 섬유패션전시회로서 특색있는 브랜딩 역량을 갖춘 도메스틱 브랜드와 소재, 제조, 디지털 테크 분야의 첨단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유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장은 ‘스타일(Style)관’과 ‘테크(Tech)관’ 2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각 테마별 콘텐츠를 집적화시켜, 수요자별 관람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콘텐츠 간의 마케팅 시너지를 강화한다. 스타일관에는 신발 · 의류 · 소품 등 패션 브랜드사들이 참가해 스트리트컬처 · 샵컬 · 팝업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연계한 최신 패션문화를 선보이

고, 제품 마케팅전을 펼칠 예정이다. 테크관에는 최첨단 소재 · 제조 · 디지털 분야 기업들이 참가해 신발 · 섬유패션산업의 미래 콘텐츠를 전시한다. 또한, 글로벌 바이어 비즈니스 페어를 기획, 사업분야 별 국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참여기업과의 일대일 상담회와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기업 IR 등을 운영하여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실효성 우선의 매출 증대 지원책을 가동한다.

김형균 부산TP 원장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하는 PFB는 글로벌 신발 · 섬유패션산업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인 AI · DX · ECO에 주목한 콘텐츠를 선보여,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며 “산업 비즈니스와 패션문화 콘텐츠가 공존하는 PFB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자 날염”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자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자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세아상역, ‘페플라스틱 자원순환 캠페인’ 동참 인니 법인과 계열사 윈텍스타일, 페PET병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 인니서 수거된 페트병 업사이클링... 계열사 협업 6,200장 티셔츠로 재탄생



세아상역(주)(대표이사 문성미)이 진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페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환경캠페인에 동참했다. 글로벌세아그룹의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법인(PT. Winners)과 계열사 윈단기업 윈텍스타일(PT. Win Textile)은 환경재단과 협업체,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페페트병 자원순환 캠페인(PlasticEcoCycle)’에 기술개발과 생산을 지원했다.

이 캠페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수거한 페플라스틱을 재가공해 티셔츠와 공인형을 제작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22년 8월부터 자카르타 내 학교 20곳을 포함한 총 89개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한 페PET병 수거함으로 모은 페플라스틱이 활용됐다.

수거된 페트병 중 총 701.76kg의 페플라스틱은 캠페인을 통해 환경전문 공익재단 환경재단과 협업체 재생 원사로 가공돼 티셔츠와 공인형으로 재탄생됐다. 특히 세아상역이 인도네시아에 구축해 놓은 수직계열화 생산시

설을 활용해 1년여 동안 페PET병을 의류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방법을 수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보다 실용적인 기술로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법인과 계열사 윈텍스타일이 힘을 합쳐 현지 설비만을 사용해 티셔츠 생산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세아상역의 품질 검증 후 완성된 티셔츠는 총 6,200장에 달하며, 자카르타 지역 아동들에게 기부되거나 캠페인 참여자를 위한 경품으로 제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세아상역 문성미 대표이사는 “진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페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지원하게 됐다”며 “단순한 티셔츠 생산을 넘어 폐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의류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세아그룹 내 세아상역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와 기술력, 글로벌 의류생산 네



김재훈의 세무상식

“해외로 반입. 반출되는 현금에 관한 규정”

정부는 현금 및/또는 기타 지불 수단의 해외 반입·반출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금 반입·반출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하기 위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금 및/또는 기타 지급 수단의 반입·반출이란, 현금 및/또는 기타 지급 수단을 해외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외 반입·반출 시 규제가 적용되는 현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루피아 지폐
2. 외화 지폐
3. 루피아 주화
4. 외화 주화

기타 지급 수단에는 당좌수표(bilyet giro), 소지인 수표(예: 수표), 여행자 수표, 지급 약속 어음, 그리고 예금 증서(양도성 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가 포함된다.

현금 및/또는 기타 지급 수단의 반입·반출에 대한 감독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이루어진다.

1. 개인이 직접 반입·반출하거나, 또는 개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반입·반출하는 경우
2. 우편사업자의 송금·발송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현금 및/또는 기타 지급 수단을 반입·반출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승객
2. 운송수단 승무원
3. 국경 통과자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1. 현금 및/또는 기타 지급 수단을 최소 Rp 1억 이상 반입·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2. Rp 10억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 지폐 반입·반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a. 개인은 Rp 10억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 지폐를 반입·반출할 수 없다.

- b. Rp 10억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 지폐의 반입·반출은 법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는 개인만 가능하다.

- c. Rp 10억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 지폐의 반입·반출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루피아 화폐로 Rp 1억 이상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BI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루피아 화폐로 Rp 1억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은 인도네시아 현금 및 지급수단 해외 반출입 규정은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벌칙)**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Rp 1억 이상을 반출·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2006년 제8호 법률(자금세탁 방지법/UU No. 8 Tahun 2010 tentang Pencegahan dan Pem-



김재훈 대표

berantasan Tindak Pidana Pencucian Uang)과 「세관법(UU Kepabeanan)」에 따라 행정벌 및 형사벌이 가능하다.

Rp 10억 이상 외화 반출·반입 시 BI 허가 없이 수행할 경우 →

「은행 인도네시아법」 및 관련 BI 규정에 따라 몰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벌칙의 형태는 보통:

현금 몰수/압수

과태료(최대 수십 억 루피아)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본 규정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하겠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트위크의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로, 향후에도 전 세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ESG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윈텍스타일은 올해 인도네시아 생산설비에서 석탄을 전면 중단하고 100%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하며 ‘Coal-Zero’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한편 세아상역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해외법인에서 지역 맞춤형 ESG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

히, 2008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그룹 차원에서 ESG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행과 실천’ 중심의 전략적 경영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섬유 업계 최초로 SBT(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을 받았다.

TIN뉴스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인니 정부측, 대학생 대표단과의 만남...구체적인 성과 없어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가운데)이 학생 대표단을 만났다 (사진=인도네시아 국무 홈페이지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일(목) 오후 7시경, 각자의 모교 유니폼을 입고 도착한 수십 명의 학생 대표단을 대통령궁으로 맞아들였다. 학생들은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뿌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 브리안 율리아르도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리 아르디안토로 차관이 이들을 맞았다.

한편, 학생 대표단에는 히마폴린도(Himapolindo-인도네시아 정치학과 학생회), 전대협 끄락야판(BEM SI Kerakyatan), 포르나소스마스(Fornasossmass-인도네시아 학생 집행위원회), PB HMI(이슬람 학생협회), GMNI(인도네시아 민족학생행동), GMKI(인도네시아 기독교학생운동), PMII(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생운동), SEMMI(인도네시아 무슬림 학생연합), KAMMI(인도네시아 무슬림 학생 행동 연합), FKPP(은퇴 장교들의 자녀와 군경 자녀 세대를 위한 소통 포럼) 등 다양한 대학 및 학생단체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간담회에 대해 국

가가 국가 발전 과정에 모든 학생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전국 나들라뿔 울라마(NU) 대학생 집행위원회 대표인 무함마드 라이한이 정부에 전달할 안전들을 미리

설명했는데 그 중 하나가 최근 시위에 대한 것이었다. 라이한이 전달한 학생들의 여러가지 열망 중에는 명예 교사들의 복지 문제와 최근 시위에서 발생한 몇몇 조치,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 문제가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궁뿐 아니라 국회에도 전달됐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브리안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 단체 지도자들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상투적인 내용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한편, 뿌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학생들이 참석하여 정부와의 대화 공간으로 대통령궁을 이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

번 간담회에 대통령궁 사용 허가를 했다면 대통령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대통령궁 사용허가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은 대통령궁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유라며 대통령의 감사와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의 바람을 받아 전해달라 말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뿌라보워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던 이들 학생들은 간담회에 나온 장관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양보와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뿌라스띠오 국무장관이 학생들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학생단체들은 이 간담회를 비판했다. 이들 학생대표들이 3일(수)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도 만났지만 그들이 대표성도 없었

을 뿐 아니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해당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나 결정을 받아내지 못했다.

대통령궁 간담회에 초대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한 가자마다 대학교 학생대표 띠요 아르디안토는 이 간담회를 당국의 정치적 상징주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애당초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불러들여 들러리로 사진 찍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만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초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던 반동 빠순단 대학교 학생대표 리도 다완은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 단체들이 학생운동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9월 1일부터 인니 입국자, 신규 앱으로 신고 의무화 신규 앱, 출입국 · 세관 · 보건 · 검역 등 하나로 통합

2025년 9월 1일(월)부터 새로운 인도네시아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에 개별로 운영하던 출입국, 세관, 보건 및 검역 등 입국 관련 사전 신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입국카드 ‘올 인도네시아(All Indonesia)’를 시행한다고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발표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선 여행객은 정부의 신규 통합 앱(App) ‘올 인도네시아’를 통해 출입국 관련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새 제도는 우선 수카르노-하타(땅그랑), 주안대(수라바야), 응우라라이(발리) 국제공항과

바탐 국제항에서 시행되며, 향후 전국 모든 공항 · 항만 · 육상 국경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출입국 심사, 세관, 건강상태, 검역 등 모든 신고를 하나의 통합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고 비용은 무료이며, 출발 3일 전부터 또는 인도네시아 도착해 출입국을 통과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울디 유스만 이민국장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큰 발전”이라며 “입국 절차가 빨라지고, 개인 여행객부터 단체, 고령자, 장애인까지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합 시스템은 승객뿐 아니라 화물 흐름까지 원활하게 하



▲수카르노하타공항 입국장 [데일리인도네시아]

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앱은 보건 신고를 의무화해 감염병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동식물 반입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병해충 및 전염병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객은 공식 웹사이트(allindonesia.imigrasi.go.id)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올 인도네시아’ 앱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미국 관세 피해 거대 소비시장-인도네시아 노리는 중국 투자자들... 발빠른 현지 시장 공략



▲서부자바 브카시에서 보이는 자카르타 스카이라인(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에 있는 산업 토지 컨설팅 회사 창립자인 가오 샤오위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막대한 수입 관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설립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2021년 4명의 직원으로 회사(PT Yard Zeal Indonesia)를 설립한 가오는 현재 4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가 많으며 요즘 매우 바쁘게 지낸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관세율은 30%를 넘고, 인도네시아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9%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동일하며 베트남의 20%보다 약간 낮다. 비슷한 관세율이라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대한 소비 시장으로써 잠재력이 큰 만큼 이웃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오토바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를 판매하는 중국 제조업체 장 차오는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비즈니스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동남아시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베트남과 태국은 중국 기업들의 첫 해외 다각화 물결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였지만, 최근 미국

과의 무역 혼란 속에서 다른 인근 이웃 국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브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5월에는 리창 중국 총리를 자카르타로 영접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옹호해 왔다. 2025년 첫 6개월 동안 중국과 홍콩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32조 6천억 루피아로 2.58% 증가했다. **거대 소비 시장** 인도네시아에는 규제 장벽, 관료 주의적 절차, 소유권 제한, 부족한 인프라, 수십 년 동안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완전한 산업 공급망의 부재 등 여러 도전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브라보워가 학생과 임산부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신중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부 자바에 위치한 2,700헥타르 이상의 수방 스마트폴리탄 산업단지의 경영진은 중국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이 발표되자 전화, 이메일, 위챗으로 새로운 중국 고객과 고객을 소개하려는 에이전트의 연락으로 매우 바빴다고 수방 스마트폴리탄의 운영사(Suryacipta Swadaya)의 영업, 마케팅 및 임차인 관계 담당 부사장인 아베드 네고 뿌르노모가 말했다. 장난감 제조업체, 섬유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시설을 찾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부자바 주에는 빠뜨릴 수 없는 심해항이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 컨설팅 회사의 가오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로 인해 2025년 1분기 산업용 부동산 및 창고 가

격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서 25%로 상승했으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턴트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산업 및 물류 서비스 책임자인 리반 무난사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며 관세 협정을 앞두고 “거의 매일” 산업용 토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임시 건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장 차오는 지난 5월 자카르타에 4층짜리 새 사무실 건물을 연간 임대료가 작년보다 43% 상승한 10만 위안(약 2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를 여실히 보여준다. 장은 인도네시아의 19% 관세 협상 수준은 자신의 예상보다 낮으며, 30% 관세를 받은 중국에서는 순이익률이 3%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20%~30%의 순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을 중심으로 소비자충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 컨설팅 회사인 Dezan Shira & Associates의 아세안(ASEAN) 담당 이사 마르코 포스터는 “인도네시아가 항상 다른 이유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공급망 다각화 외에도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제공할 수 없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아크테릭스, 넬슨스포츠 인수 계약 체결... 한국서 직접소비자(DTC) 사업 전개

글로벌 고기능성 의류 및 장비 기업 ‘아크테릭스(Arc'teryx Equipment)’가 한국 독점 유통사였던 넬슨스포츠(Nelson Sports Inc)의 주요 자산과 일부 부채를 인수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넬슨스포츠는 2001년부터 아크테릭스와 베일런스(Veillance)의 한국 독점 유통을 담당하며 브랜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번 인수로 양사는 기존 유통 중심 협력 관계를 넘어, 소비자 직접 만나는 DTC(Direct-to-Consumer)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브랜드 성장 여정의 다음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사업 전환에 따라 정해진 넬슨스포츠 부사장이 아크테릭스 코리아 총괄대표로 임명됐다. 아크테릭스 아시아태평양 총괄 케리 리(Ken Lee)는 “넬슨스포츠는 한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탄탄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 설립자인 정



호진 대표는 열정적인 알파니스트이자 동반자로 2001년부터 아크테릭스를 한국 산악 커뮤니티와 애호가들에게 처음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호진 대표, 정해빈 대표, 그리고 넬슨스포츠 팀은 이번 거래 과정에서도 산악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당사에 큰 영감을 주었다”며 “이번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아크테릭스는 넬슨스포츠가 오랜 시간 쌓아온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이라는 핵심

시장에서 직접소비자(DTC)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넬슨스포츠 대표는 “아크테릭스와 넬슨스포츠는 장기간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이번 거래는 양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아크테릭스 제품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넬슨스포츠의 일부 사업은 아크테릭스와 별도로 독립 운영된다. 이에 넬슨스포츠는 7개의 ‘더 기어샵’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소유 및 운영하며 아크테릭스 제품과 함께 엄선된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유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거래는 2025년 하반기 중 규제 당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YUSUNG E&C

종합건설 & 엔지니어링



유성열 대표 : 081280370303
이광선 이사 : 081210077732

건설 기계 전기 배관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 yusungjaya1@hotmail.com / Tel. (021) 598 0222 / 598 2666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별의별’의 발음 연습



요거는 발음이 참 헛갈리는 것이지요, 그에 따른 철자도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별에별’이라고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 말의 발음은 [벼 별]이라고도 하고 [벼레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쓸 때 ‘별의별’로 쓸 것인지 ‘별에별’로 쓸 것인지 헛갈리지요. ‘별의별’의 뜻은 ‘별다른 중에도 더욱 별다른’, ‘여러 가지로 별다른’입니다. 줄여서 ‘별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구조는 속격의 조사 ‘의’로 연결된 동일한 형태소(혹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별의별 기화요초가 가득하다.”처럼 쓰이거나 “별의별 말로 달래도 막무가내야.”처럼 씁니다.(황경수, <틀리기 쉬운 우리말>) 표준 발음법에서 속격의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발음상으로는 [벼 별], [벼레별] 모두 가능합니다. 강의의 의의 발음 =>강이에(의) 의이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합변의 법률상식

외국인 임원 및 이사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PT PMA(외국인 투자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또는 이사(Director, Commissioner)는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상법 및 관련 규정은 임원의 역할, 책임, 그리고 위반 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외국인 임원으로서 반드시 인지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과 리스크 요소를 다룹니다.

1. 외국인 임원의 법적 지위와 요건

- ① 외국인의 임원 등록 조건
 - PT PMA의 이사(Director) 또는 감사 위원(Commissioner)으로 외국인이 임명될 수 있음
 - KITAS(취업 비자), NPWP(세금번호) 등의 서류 구비가 필수
 - OSS 시스템에 등록되고 상무부 승인 필요
- ② 거주 요건 및 활동 제한
 - 현지 상주 요건 존재 (단기 출장자로서 이사 등록 불가)
 - 동일인이 여러 법인에 중복 등재될 경우, 이해상충 이슈 발생 가능

2. 임원의 법적 책임 유형

- ① 민사상 책임
 -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예: 재무제표 허위 작성, 허위 정보 제공 등
- ② 형사상 책임
 - 조세 회피, 허위 보고, 배임 등은 형사처벌 대상

- 특히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등재된 ‘명의 이사’도 실질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

- ③ 행정상 책임
 - OSS 시스템 미갱신, 보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직무정지 조치 가능

3. 실무상 주요 리스크 사례

- ① ‘명의만 빌려준 이사’ 문제
 - 현지 파트너의 요청으로 이사에 이름만 등재하고 실질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적 책임이 부과된 사례
- ② 세무 불이행에 따른 개인 고발
 - 법인의 세금 미납 문제로 대표이사인 외국인이 출국 정지 대상이 된 사례
- ③ 회계 감사 의견 거절 및 책임 추궁
 - 감사 결과 재무정보 신뢰 불가 판단이 나오며, 이사의 회계 관리 소홀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4. 법적 리스크 예방 전략

- ① 명확한 역할 분담과 문서화
 - 회의록, 의사결정 문서, 보고자료 등으로 책임 영역 명시
 - 전결권 체계 및 승인 절차 수립
- ② 내부통제 및 준법 시스템 구축
 - 계약 검토 체계, 법무 자문 체계 강화
 -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정기 점검
- ③ 보험 및 보호 장치 활용
 - 임원 배상 책임 보험(D&O Insurance) 가입 검토
 - 정관에 임원의 면책 조항 포함 가능 여부 검토

맺음말

외국인 임원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함 이상의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PT PMA의 성공



변호사 함상욱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임원 개인의 법적 보호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자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임원의 자세입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우리 실로 만든 K-텍스타일, 섬유 수출 이끈다 PIS 2025 섬산련 x (주)효성티앤씨 Korea Textile Zone에서 국산 인증 수여식 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는 8월 21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 PIS) 2025' 전시회에서 국산 섬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섬산련과 (주)효성티앤씨가 공동으로 운영한 Korea Textile Zone에서 국산 섬유소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세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섬유 수출의 활로를 넓히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는 '05년도부터 국산 섬유소재 사용 촉진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섬산련이 운영해 온 제도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한다.

인증 종류는 원단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산인 'Korea Product', 원사부터 원단까지 국내산인 'Korea Textile',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산인 'Korea Product Plus'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섬유제품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주)효성티앤씨의 주요 고객사로 ▲세창상사(주), ▲태진실업(주), ▲예스, 텍스타일 컨설팅랩, ▲(주)한은텍스, ▲현진니트, ▲(주)부건니트 총 6개사가 국산 섬유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세창상사(주)(대표 이창근)는 트리코트 및 벨벳 원단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갖춘 중견기업이며, 태진실업(주)

(대표 윤건상, 윤영섭)은 기능성 환편니트를 중심으로 국내외 브랜드에 거래를 하는 강소기업이며, 예스, 텍스타일 컨설팅랩(대표 박인병)은 스포츠 및 아웃도어 원단 전문기업으로 경량 화섬스판덱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은텍스(대표 신한호)는 ALL IN ONE FABRIC 컨셉으로 ATHLEISURE용 친환경 기능성 경편 및 환편 니트 제조에 특화된 중견기업이며, 현진니트(대표 여순희)는 친환경 및 기능성 경편 니트, 수영복, 애슬레저 원단 전문기업으로 자체 편직 설비 및 디자인·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부건니트(대표 윤정환)는 편직 준비공정부터 편직물 생산까지 자체 생산설비를 갖춘 강연사 기반의 환편니트 원단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향후, 인증기업들은 인증마크 활용을 통한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국내외 바이어 대상 B2B 판로 확대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섬산련 관계자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은 국내 섬유산업의 생산력을 공고히 하고, 국산 원사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주)효성티앤씨와 같은 원사 공급사와 인증기업 간 연계는 국내 공급망 내 신뢰 기반 강화의 우수 사례"라고 밝혔다.

※문의: 섬산련 산업융합실
(Tel: 02-528-4036/4035, sjun@kotiti.or.kr)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6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6년(丙午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CREATIVE DESIGN COMPANY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10권부터 가능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2025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8/2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BANGUN MAJU LESTARI	2025.01.13	50 JT			
2	NOTOS (WOOIN)	2025.01.13	15 JT			
3	TRADEWIND INDONESIA	2025.01.13			3,5 JT	
4	DAEDONG INTERNATIONAL	2025.01.13			3,5 JT	
5	MYUNGSEONG MACHINERY	2025.01.13			3,5 JT	
6	UNGARAN INDAH BUSANA	2025.01.13			3,5 JT	
7	SEYANG ACTIVEWEAR	2025.01.13			3,5 JT	
8	SAMSAM JAYA	2025.01.13			3,5 JT	
9	SEYOUNG INDUSTRY	2025.01.13			3,5 JT	
10	AAB	2025.01.13			3,5 JT	
11	BLUE ROSE NARADO	2025.01.14			3,5 JT	
12	PURNAMA ASIH SUR	2025.01.14			3,5 JT	
13	INKORDAN	2025.01.14			3,5 JT	
14	DREAMWEAR	2025.01.14			3,5 JT	
15	WOOSHIN GARMAENT	2025.01.15			3,5 JT	
16	TPINC TRADING	2025.01.15		30 JT		
17	KAHOINDAH	2025.01.16			3,5 JT	
18	GAYA INDAH KHARISMA	2025.01.16	15 JT			
19	OROM CONSULTING	2025.01.16	15 JT			
20	DASAN PAN PICIFIC	2025.01.16			3,5 JT	
21	DTL	2025.01.17	15 JT			
22	KEUMKWANG	2025.01.17	15 JT			
23	TUNGGAL INDOTAMA ABADI	2025.01.17	15 JT			
24	BOSUNG	2025.01.17			3,5 JT	
25	DOOSAN CIPTA BUSANA	2025.01.17		30 JT		
26	ZIMMOAH MARINE TRANS	2025.01.17			3,5 JT	
27	ZIBEN INDONESIA	2025.01.17			3,5 JT	
28	JUN H INDONESIA	2025.01.20			3,5 JT	
29	GAYA MAKMUR	2025.01.20			3,5 JT	
30	HESED	2025.01.20	15 JT			
31	PERTIWI INDO MAS	2025.01.20			3,5 JT	
32	L&B INDONESIA	2025.01.20			3,5 JT	
33	INDO BOX	2025.01.20			3,5 JT	
34	DONGJUNG	2025.01.21			3,5 JT	
35	KG FASHION	2025.01.21			3,5 JT	
36	SEJIN GLOBAL	2025.01.21			3,5 JT	
37	YOUNHEUNG MEGASARI	2025.01.22			3,5 JT	
38	CITRA UNGGUL PERKASA	2025.01.22	15 JT			
39	KARYA TRI ABADI	2025.01.23			3,5 JT	
40	WINNER INTRNATIONAL	2025.01.24		30 JT		
41	DELTA MATE MAJALENGKA	2025.01.25			3,5 JT	
42	DELTA MATE INDONESIA	2025.01.25			3,5 JT	
43	UNICORN MACHINE	2025.01.30			3,5 JT	
44	SCENIC INTERNATIONAL	2025.01.30			3,5 JT	
45	KNH GARMINDO JAYA	2025.01.30			3,5 JT	
46	HARINDO	2025.01.30			3,5 JT	
47	MAJUEL	2025.01.30			3,5 JT	
48	SOLVE IT	2025.01.31			3,5 JT	
49	MINU	2025.01.31			3,5 JT	
50	YB APPAREL JAYA	2025.01.31			3,5 JT	
51	HARAPAN GLOBAL	2025.01.31			3,5 JT	
52	JIN MYOUNG	2025.02.03			3,5 JT	
53	PELITA HARAPAN ABADI	2025.02.03			3,5 JT	
54	MANITO	2025.02.06			3,5 JT	
55	HANSAE INDONESIA UTAMA	2025.02.06		30 JT		
56	JM TECH	2025.02.10			3,5 JT	
57	PETRA SAKTI	2025.02.10		30 JT		
58	AMOS INDAH INDONESIA	2025.02.12			3,5 JT	
59	HANSOLL	2025.02.14		30 JT		
60	AAM	2025.02.14			3,5 JT	
61	PERMATA GARMENT	2025.02.14			3,5 JT	
62	RINA JAYA GARMENT	2025.02.14			3,5 JT	
63	DONGYANG NISUSINDO	2025.02.14			3,5 JT	
64	C-SITE TEXPIA	2025.02.17			3,5 JT	
65	SAMKYUNG JAYA	2025.02.18			3,5 JT	
66	LIMANTARA INDAH	2025.02.18			3,5 JT	
67	ING INTERNATIONAL	2025.02.18			3,5 JT	
68	MUARA TUNGGAL	2025.02.18			3,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69	KOREA VILENE	2025.02.19			3,5 JT	
70	DAYUP INDO	2025.02.20			3,5 JT	
71	SEOWON	2025.02.24			3,5 JT	
72	DAEHAN GLOBAL	2025.02.24		30 JT		
73	SAMSHING INDONESIA	2025.02.24			3,5 JT	
74	SUKWANG INDONESIA	2025.02.25		30 JT		
75	TAEWON	2025.02.26			3,5 JT	
76	BUSANA INDAH GLOBAL	2025.02.27			3,5 JT	
77	PARAN INTERNATIONAL	2025.03.03			3,5 JT	
78	GOLDEN GARMENTS	2025.03.05			3,5 JT	
79	GLOBAL TRIMS CREATOR	2025.03.05			3,5 JT	
80	INKORDAN	2025.03.06		30 JT		
81	ELITE	2025.03.07			3,5 JT	
82	WONEEL MIDAS	2025.03.07			3,5 JT	
83	HANSOL PLEATS	2025.03.07			3,5 JT	
84	GREENLON	2025.03.11			3,5 JT	
85	SUCI PINTAK PLEATS	2025.03.11			3,5 JT	
86	MUTIARA BUSANA INDAH	2025.03.12	15 JT			
87	BLUE SEA GLOBAL	2025.03.12			3,5 JT	
88	KIDO MULIA INDONESIA	2025.03.12			3,5 JT	
89	PESAT GLOBAL	2025.03.14			3,5 JT	
90	YONGJIN	2025.03.18			3,5 JT	
91	SUN SUKA ABADI	2025.03.20			3,5 JT	
92	GUNUNG SALAK SUKABUMI	2025.03.20			3,5 JT	
93	TA GLOBAL	2025.03.24			3,5 JT	
94	WORLD STAR GARMENT	2025.04.28	15 JT			
95	SJ CONSULTING	2025.05.09			3,5 JT	
96	HJ BUSANA INDAH	2025.05.22			3,5 JT	
97	HWASHIN GLOBAL	2025.05.23			3,5 JT	
98	PPF	2025.05.28			3,5 JT	
99	JEFF SOURCING	2025.05.28			3,5 JT	
100	업체미상	2025.05.30			3,5 JT	
101	DK INTERNATIONAL	2025.06.02			3,5 JT	
102	GREENTEX INDONESIA	2025.06.02			3,5 JT	
103	YURI INDO APPAREL	2025.06.03			3,5 JT	
104	SUNGBO JAYA	2025.06.03			3,5 JT	
105	업체미상	2025.06.09			3,5 JT	
106	BUMA APPAREL INDUSTRY	2025.06.10			3,5 JT	
107	KOTEK INDAH	2025.06.10			3,5 JT	
108	DAESANG INTERNATIONAL	2025.06.12			3,5 JT	
109	BPG	2025.07.01		30 JT		
110	YOUNGHYUN STAR	2025.07.23			3,5 JT	
111	PRESTASI UTAMA NYATA	2025.07.25			3,5 JT	
112	ISTANA GARMINDO	2025.07.30			3,5 JT	
113	JS JAKARTA	2025.07.31		20 JT		
114	KAHO	2025.08.08			3,5 JT	
115	WOORI SUKSES APPERAL	2025.08.11			3,5 JT	
116	GORI GLOBAL	2025.08.11			3,5 JT	
117	MULTI WELL EMBROIDERY	2025.08.11			3,5 JT	
118	APLUS LOGISTIK	2025.08.12			3,5 JT	
119	GLOBAL BUSANA	2025.08.13			3,5 JT	
120	업체미상	2025.08.15			3,5 JT	
121	KAILO	2025.08.15			3,5 JT	
122	KYDO INDONESIA	2025.08.20			3,5 JT	
123	TIGA KYUNGSUNG	2025.08.20			3,5 JT	
124	SAMWON ABADI INDONESIA	2025.08.22			3,5 JT	
125	KSI	2025.08.23			3,5 JT	
126	SIMONE	2025.08.25			3,5 JT	
127	MUARA TUNGGAL	2025.08.25				10 JT
128	GAYA MAKMUR	2025.08.25				10 JT
129	PERMATA GARMENT	2025.07.28				3 JT
130	MUTIARA BUSANA INDAH	2025.08.07				10 JT
131	INDO HOSE	2025.08.12				5 JT
132	CITRA UNGGUL PERKASA	2025.08.14				20 JT
133	HARAPAN GLOBAL	2025.08.15				5 JT
134	TAEWON	2025.08.19				20 JT
135	YEONHEUNG	2025.08.19				15 JT
136	ZIBEN INDONESIA	2025.08.21				5 JT

한국의 빛 ‘진주실크등’ , 인도네시아 불 밝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한국의 빛, 진주실크등’ 전시회(진주시 제공, 재판 매 및 DB금지).

‘한국의 빛’ 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경남 진주의 ‘진주 실크등(燈)’ 이 인도네시아 전시회에서 호응받았다. 진주시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전시장에서 ‘한국의 빛, 진주실크등’ 인도네시아 전시회가 개막해 다음 달 17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800여 개의 진주 실크등으로 조성된 등 터널과 진주 홍보관, 포토존 등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선보인

다. 개막식에는 진주의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송임숙 이수자가 자카르타 예술대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협연으로 진주검무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재외문화원 순회전시 사업)’ 과 연계해 재외 한국문화원과 시가 공동 주최 ·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필리핀 전

시회에서는 진주실크등, 소망등, 키트 제작, 한복 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고 SNS 누적 조회수 5900회, 누적 관람객 5600명을 등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베트남에서는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진주실크등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브라질, 필리핀에서 큰 호응을 받은 진주실크등 전시가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순회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 며 “진주실크등이 대한민국의 K-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1]



잇미샤, 가을 그 찰나의 순간
잇미샤가 2025 가을 캠페인의 첫 번째 챕터 ‘flirt with FALL’ 을 공개했다. 변화의 시작점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정과 분위기를 담아낸 시리즈로 순차적인 전개를 통해 깊어지는 가을 무드를 그려냈다. 미샤의 뮤즈 신예은이 유럽 감성의 스트릿을 배경으로 가을을 즐기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다.

주요브랜드 2025 광고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에퀴엠, 일탈의 아름다움
에퀴엠이 정형화된 틀을 벗고 내면의 감각과 조형적 자유를 중심에 둔 2025 F/W 컬렉션을 공개한다. 컬렉션은 외형적 고급스러움이 아닌, 자신 내면의 의지와 감각에서 비롯된 진정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는 3050세대는 물론, 감각적 자율성과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가치관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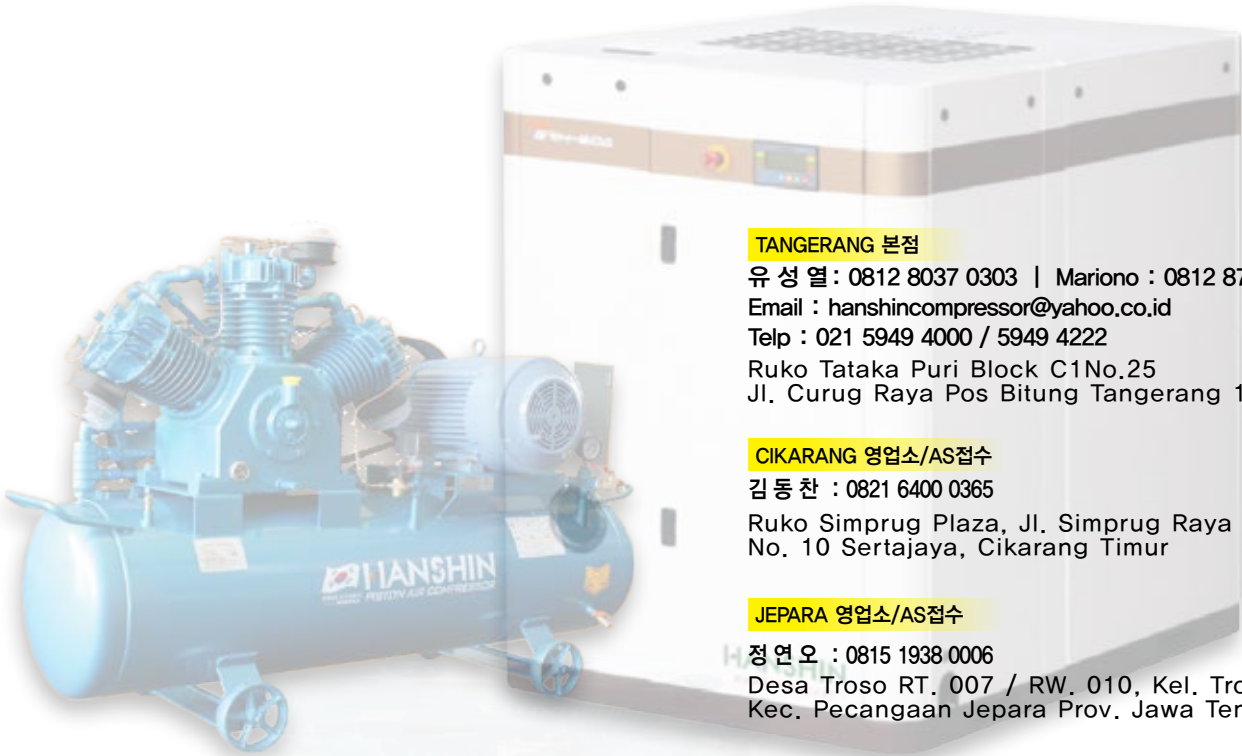
아이더, 여름 산행에 최적화된 쾌적한 등산화
아이더가 무더운 여름철에도 발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등산화 ‘에어로 트렉(AERO TREX)’을 선보인다. ‘에어로 트렉’은 통기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한 설계로 여름철 산행과 트레킹에 최적화됐다. 스트레치성이 뛰어난 고어텍스 원단에 360도 투습이 가능한 공법을 결합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한다.



디올, 대담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
디올이 다채로운 유산을 재조명하는 디올링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달링(Darling)이라는 애칭을 유쾌적으로 표현하였으며 1963년에 출시된 디올링 향수와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선보인 제품 라인을 연상시킨다. 아이코닉한 필기체 시그니처로 장식된 작품들은 대담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더했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